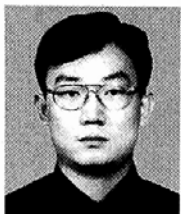


사·부·대·중

담장의 후예들 없나

'한민족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보고 있으면 시청할 때마다 "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최원섭 성철선사상 연구원 기사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씩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취재 대상인 나라들은 거의 '오지'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교민의 활동이라는 것이 문명의 '혜택'도 없이 '미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교화의 수단은 기독교였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개되는 사람들의 직업이 목사 아니면 전도사이니 말이다. 그들은 의료와 교육, 생활도구 등을 성실함에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또다른 언더우드나 세브라스를 보게 된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차라리 '한민족 전도 리포트'가 적절할 일이었다. 그리고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인 사유구조가 이렇게 일반화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만일 삼국시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일본에서 계몽활동을 벌이던 '담장' 스님이 첫 번째로 소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렇다면 2000년대인 지금은?

일전에 종합학교를 다니는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아와 명상'이라는 수업을 언급하면서 스님들은 TV를 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대리출석을 부탁했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뜻밖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꼭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은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것 같다. 우리의 일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고고'하고 '고결'하게 살고 계신 것이 스님이라는 생각 말이다.

반면에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성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활발한 봉사 활동과 사회활동을 펼치는 분들에게는 시각이 또 일반적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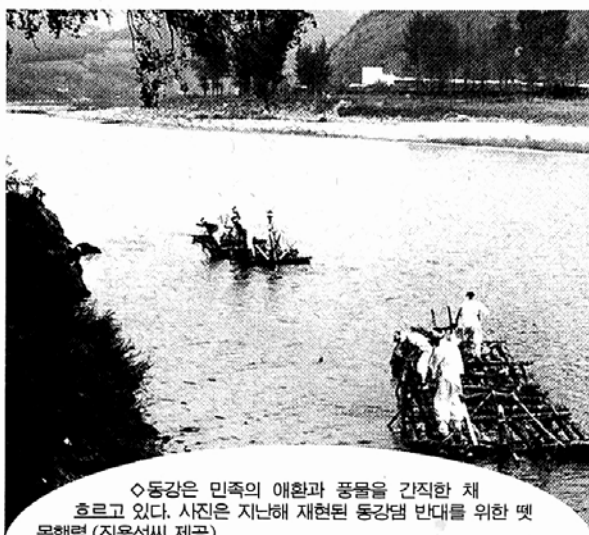
그렇다면 '담장 리포트'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담장의 후예들이 사회에 알려지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이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일까?

지난 6월5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중인 세종문화회관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찼다. 동강댐 백지화는 무엇보다도 시민환경운동의 승리였다. 또한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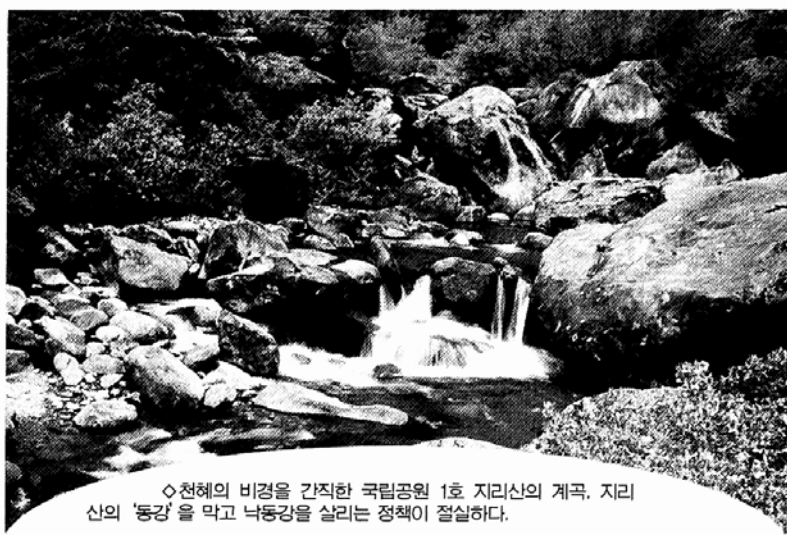
그러나 온 국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며 자축하는 이 순간에도 10여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추진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되었지만 동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개발론자들이 동강의 비경과 생물자원을 파괴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올 여름, 환경운동가들의 화두는 '동강 다음은 지리산'이었다.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문제가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리산 자락에 은밀히 추진해온 식수댐 건설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189개 종교·환경·시민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결성됐다.

지리산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댐 건설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책안에는 수질오염과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수계에 지리산 2곳을 포함, 모두 6개의 갈수구 조정댐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댐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



동강은 민족의 애환과 풍물을 간직한 채 흐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재현된 동강댐 반대를 위한 뱃목행렬.(진용선씨 제공)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계곡, 지리산의 '동강'을 막고 낙동강을 살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동강의 교훈으로 지리산 꼭 살리자

시민환경운동의 승리

영월댐 백지화

지난 6월5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중인 세종문화회관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찼다. 동강댐 백지화는 무엇보다도 시민환경운동의 승리였다. 또한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되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며 자축하는 이 순간에도 10여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추진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되었지만 동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개발론자들이 동강의 비경과 생물자원을 파괴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내년 상반기 최종결정

동강 다음은 지리산

올 여름, 환경운동가들의 화두는 '동강 다음은 지리산'이었다.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문제가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리산 자락에 은밀히 추진해온 식수댐 건설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189개 종교·환경·시민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결성됐다.

지리산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댐 건설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책안에는 수질오염과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수계에 지리산 2곳을 포함, 모두 6개의 갈수구 조정댐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댐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

동강 영월댐과 지리산 식수댐 비교

Table comparing Donggang and Geirisan water projects. Columns include Donggang Yongweoldam, Contents, and Geirisan Water Project. Rows list project details, dam types, and environmental impacts.

면서 '제2동강 사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월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을 구성,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올 연말까지 조사활동을 끝내고 물부족과 오염실태에 대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댐건설 위주 정책 지방

국민행동은, 낙동강의 수질

오염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부산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 계곡에 식수댐 2개소를 건설, 광역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려는 발상은 한마디로 '낙동강도 죽이고 지리산도 죽이는 짓'이기에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켜 낙동강과 지리산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댐 건설에 투입될 돈을 차라리 '낙동강 살리기'에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한발씩 옮길때마다 국토청정 발원"

낙동강 보도순례단 안병태 대장



"고행(苦行)하는 마음으로 지리산과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단장 수경스님의 원력을 받아들여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국토청정 발원하겠습니다.

오는 23일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못에서 내달 19일 낙동강 하구인 부산 을숙도까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민족의

젓줄인 낙동강을 살리자는 발원을 안고 1300리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낙동강보도순례단 대장을 맡은 안병태(39)씨는 낙동강 순례가 식수문제로 야기된 경남의 동·서부 주민과 대구·부산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 을숙도까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민족의

국민행동 양장일 사무국장은 "정부는 하루 400l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1인당 물 사용량(OECD국가중 6위)을 선진국 수준(200-300l)으로 끌어내리는 물 절약 방안을 세우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폐수 적극활용

외국에서는 하수와 폐수를 활용해 농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식수와 하드렛물을 분리하는 중수도의 활성화, 강변여과수 활용, 하천유역에 자연적인 습지 등을 조성해 자연정화력을 높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 수요관리 위주 물정책을 시행 또는 실험하고 있다.

미국=물 1000l절약시 125달러의 보상금 지급, 생태계 복원 및 노후 댐 유지 보수수준으로 90년대 들어 465개의 댐을 해체, 이스라엘=절약형 살비 설치, 누수의 점검 및 보수, 중국=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물값정책, 캐나다=물값 인상, 절약장비 보급, 절수 교육, 호주=정부차원의 절수 정책, 일본=대부분의 가정에서 빗물을 받아 다시 사용, 독일=학교 운동장 아래 물탱크를 만들어 빗물을 받거나 한번 사용한 물을 받아 재사용.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을 단장으로 원불교 환경단체인 천지보은회와 녹색연합 회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순례단(10명은 지원원)을 구성, 낙동강 500km를 한달간 답사하며 환경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안 대장은 "태백 안동 문경 구미 대구 창원 부산 지리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갖고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희망과 원력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종단협 사무총장의 대북관

정성운 (취재1부 차장)

최근의 남북문제에 대한 평가는 여럿 있을 수 있다. 대북식량 지원을 두고도, "북한 정권의 연장을 돕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 대화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이 모인 종단협의회의 입장을 굳이 따진다면, 그동안 몇 차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받는 단체로 지정해 겨울옷과 신발, 육수수 등을 보냈으나 후자의 입장인 듯하다. 오는 11월에도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낸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별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의 지난 11일 삼암이사회에서의 발언은 종단협의회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종단협의회에 보낸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가 초청장에 대해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는 회신이 늦어진 것을 따지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의 항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공산당에 무슨 축하냐. 축하한다는 말을 빼라. '북쪽에 꼭 답신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니냐. 별안간 오라고 하는데...'"

많은 불자들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불교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류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홍파스님의 발언에 따르면, 지원과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는 종단협의회와 대북교류 방침은 수정해야 한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생각은 남북관계 등 이 단체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12월 초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열기로 북한과 합의를 보았으며, 토론회 실무협의를 위해 이달 말 만나지고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북한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발언을 한 사무총장이 어떻게 역사적인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지휘해낼 지 의문을 지을 수 없다. 기자만의 생각이길 바란다.

제 1회 불교서적 독서감상문 공모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이 행사는 불교계에서 출판이 되고있는 양질의 책을 소개하여 불교인, 일반인 모두에게 마음의 양식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불서나 현대불교 지상을 통해 소개된 불서 중에서 한 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이번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요령

- 1. 현대불교지상에 소개된 책이나 다음에 소개되는 불서중 한권을 골라 독서감상문 제출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15매 안팎
3. 응모기간 : 2000년 11월 30일 까지
4. 당선작 발표 : 2000년 12월 현대불교신문 지면.
5. 접수처 : 서울시.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독서감상문 담당자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나 개별 방문 접수]
6. 시상내용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기작 3명, 장려상 10명 - 상금 또는 상품권
응모자 전원 - 기념품 증정
7. 응모시 유의사항
원고 끝에 읽은 책 이름, 저자·역자 이름, 출판사이름, 응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재.
문의 : ☎ 02-737-8881로 문의 바랍니다.

Table listing book titles and authors for the reading competition. Includes titles like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밀교보리심론',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Table listing book titles and authors for the reading competition. Includes titles like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필만대장정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1, 2, 3)', '원혜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 위 도서들은 책방에서아니면 별도 코너로 있으며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책방 예시이름 : 02-732-1521